

CJ Feed

우수 농장의 날 성료

가람목장의 성공의 비결, “철저한 사양관리의 실천과 애정”

CJ Feed는 지난 4월 20일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가람목장(대표 신병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200여 낙농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김우식 상무는 인사말에서 “가람목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장이며 다른 목장에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목장”이라고 말하며 “가람목장은 ‘기본에 충실, 가축에 애정’이라는 기본 명제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의 산물”이라며 “이 곳에 어렵게 찾아 온 이상 많은 것을 배워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김순영 도지회장은 “현재의 가람목장이 있기까지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 그리고 애정이 있었다.”고 말하며 “모두들 귀와 눈만으로 끝내지 말고 돌아가 실천에 옮겨서, 모두가 가람목장과 같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람 목장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경산우 43두, 육성우 45두, 운동장(1,000여평), 착유실(60



▲신병국씨 부부와 김우식상무, 지흥근 지역부장

여평), 건유우사(100평), 육성우사(240평) 등 우사 총면적 3,000여 평 그리고 사료포 1만 5천평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어디 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흔한 규모의 목장이다. 그럼에도 가람목장은 2002년 평균유량 40Kg에 도달해 2006년 2월 현재(43.3Kg)까지 약 5년간 40Kg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검정성적도 지난 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목장이다. 가람목장의 성적을 살펴보면 일일 평균산유량 45Kg으로 지난해 평균 유대가 3억여 원임에도 유사비가 45%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영성적을 갖고 있다.

가람목장의 성공의 비결은 “기본적인 사양관리의 철저한 실천과 애정”이란 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쉬운 일도 아닌 일. 거기에는 ‘실천’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신병국 사장은 지난 '80년 송아지 1두로 시작하면서 27년 동안 곧 줄 ‘실천과 애정’이란 단어를 몸소 실천해 왔다.

가람목장의 사양관리의 큰 테두리는 ‘각 단계 별 사양의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다. 송아지는 모유를 70일 이상 급여하고 있으며 물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고인 물은 급여하지 않고 있으며

항상 흐르는 1급수의 물만을 급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로 질병이 없을 뿐 아니라 육성우 때 성장도 빠르다.

평균 산유량이 많으면 대사성 질병도 많고 산차수도 줄어든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매년 40Kg이상의 높은 산유량에도 불구하고 대사성 질병은 물론 산차수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송아지 때부터 기본적인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란. 가람목장의 착유우들의 평균 건물 섭취량이 31.5Kg이다. 말이 31.5Kg이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착유우의 건물 섭취량은 송아지와 육성기 때의 사양관리에 달려있다고 신병국 사장은 말한다. '기본에 충실하고 애정을 갖는 일', 이것에 진리(?)가 숨겨져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신 사장은 "납유 유업체의 부도와 쿠틀로 인한 납유 제한 등으로 목장에 위기가 찾아 왔지만 목장에 대한 최고의 열정으로 다시금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말하며 "그 곳에는 한결같이 CJ Feed가 함께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CJ Feed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진사료 준공식 성황리 개최

CJ Feed가 중국사료사업 진출 4년만인 지난 4월 8일, 7번째 공장인 천진CJ사료 공장 준공식이 많은 CJ사료 본부장(이병하님)외 중국내 주요 인사 그리고 축산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천진 씨제이는 중국내 중심인 베이징을 포함한 2,000여개의 많은 사료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작년 6월 후발업체로 출발, 씨제이 청도공장에서 사료



를 공급 받아 양돈사료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11월에는 추가로 낙농사료를 판매함에 따라 시장의 정상적인 진입에 성공했다. 천진씨제이가 위치한 천진시 정해개발구는 하북성 전지역과 산시성 그리고 내몽고 일부의 운송이 용이한 진호고속도로(천진~상해간)에서 5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판매량 확대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내 사천성 다음으로 많은 양돈두수를 사육하는 중심 시장에 씨제이사료 7번째 공장을 건립하게 되었다.

우성사료(주)

낙농 신제품, 오웰빙(5WellBeing) 출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3월 2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영업사원을 비롯한 마케팅 조직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낙농 신제품 출시회의를 가졌다.

오웰빙은 우성사료 고유의 축우사료 설계원리인 토탈뉴트리션 개념에 세계적인 낙농전문회사인 프로비미사(본사 화란)의 간 건강에 대한 검증된 노하우를 접목시켜 탄생되었다. 우성사료는 PROVIMI사의 낙농 스펙셜리스트 Iweve



Hofstede(호프스테드)씨를 초청하여 3월 24일 본사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상주 관

광호텔, 28일 이천 미란다호텔, 29일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전국의 낙농사양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간기능 개선과 생산성 향상방안>이란 주제로 오웰빙 신제품 출시회의를 가졌다.

이번 신제품의 총괄기획을 맡은 축우PM 손근남 이사는 “오웰빙은 젖소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기관의 웰빙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젖소의 임무는 새끼 잘 낳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좋은 품질의 젖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여 새끼와 젖 만드는 <자궁>과 <유방>을 늘 젊고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먹거리를 편안히 먹고 잘 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해야 함으로 <발굽>과 <반추위>를 강건하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소화 흡수된 영양소를 합성하고 해로운 물질은 분해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고 남은 영양소는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곳, 바로 <간>은 절대자가 주재하는 화학공장이며 수력발전소의 댐과 같다. 5월빙의 꼭지점은 간“이라고 말했다.

젖소의 5대 기관의 웰빙의 사명을 띠고 탄생된 오웰빙의 특징점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생기찬 간(Healthy Liver)
간기능 개선제 특수처방, PROVIM사 기술점목
- 2) 강건한 발굽(Healthy Hoof)

발굽건강 증진제 신기용, 바이오틴/나이아신 강처방

- 3) 편안한 반추위(Healthy Rumen)
발효환경 안정제, 고급 복합생균제, 효소분비 촉진제 다중 균형처방
- 4) 깨끗한 유방(Healthy Udder)
생리활성/면역증강 물질 강처방, 유기태 미량 광물질 적정처방
- 5) 늘 젊은 자궁(Healthy Uterus)
Vit. AD3E, 5대 미량광물질 Se, Co, Cu, Mn,Zn 특수처방

비육우 세미나 개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4월 7일 안성시 가현동 소재 궁전웨딩홀에서 안성지역 비육우 사양가를 비롯한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육우 세미나 및 에코프랜드 콘테스트 개시회의를 개최했다.

올 2월 출시한 에코프랜드는 입식우 수송스트레스 조기 회복을 위한 사료로 친환경 축산 실험을 위한 무항생제 사료로 축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에코프랜드는 항생제 대체물질의 종합처방과



미생물 단백질원 특수첨가, 가소화섬유소 함량 강화 등으로 입식우 수송스트레스 조기 회복에 탁월하다. 또 설사, 호흡기, 고창증 발생을 최소화해 잘 먹고, 뒤탈이 없다. 특히 무항생제 사료이기 때문에 항생제 잔류 및 내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했으며, 영양소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해 일당 증체를 향상시킨다.

우성사료는 5월말에서 6월 초경 콘테스트 종료 회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목장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천안지구본부 성용경 지역부장은 비육목장의 보다 높은 수익 증대를 위해 입식 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제품 에코프랜드 급여 성적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성사료의 우수성을 재 입증했다.

천안연암대에 축산 장학금 전달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4월 4일 천안연암대에 축산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축산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축산계열 김문기 학생을 비롯한 10명에게 총 5,000,000원이 수여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후원 할 계획이다.

우성사료는 2005년 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15명에게 7,500,000원을 지급했다.

우성사료 김성민 상무이사는 인사말에서 축산의 밑거름이 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과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산·학계간 협력체제를 이뤘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더욱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강조했다.

대성미생물(주)

최신 비유기 유방염 연구 “세파-M300”, “세파-D59” 신제품 출시

대성미생물(주)은 최근 비유기 유방염 연구 “세파-M300”, “세파-D59”를 출시했다.

세파-M300은 비유기 유방염 전문치료제로 현재 전 세계 낙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팔로스포린계 세푸록심 제제로 내성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방염 원인균(Staphylococcus, S.aureus, Streptococcus, E.coli, Corynebacterium, G(-)bacillus 등)에 강한 항균력을 발휘하여 임상형 및 잠재형 유방염의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한다. 1회 주입량 3g 으로 투여가 쉽고 간편하며 시린지 입구가 짧고 부드러워 유두공의 자극없이 치료할 수 있다.

세파-D59는 광범위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계 열 세팔로니움 제제로 임상형 및 잠재형 유방염 치료에 탁월하다. 항균력이 59일 지속되어 산전 및 산후 유방염에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1회 주입량이 3g 이므로 투여가 쉽고 간편하며 시린지 입구가 짧고 부드러워 유두공의 자극없이 치료할 수 있다.



우진 비앤지(주)

지리산 등반대회 가져

우진 비앤지(대표이사 강석진)는 3월31~4/1 일 양일간에 걸쳐 지리산 한화콘도에서 1/4 분기 마감 및 2/4분기 마케팅 전략회의 및 지리산 등반 대회를 가졌다. 이번 마케팅 전략회의에서는 1/4분기 목표달성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센티브 달성 우수사원 시상과 목표달성 사례발표, 2/4분기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리산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등반을 통해 목표달성 의지 확인과 직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의 시간도 가졌다.



(주)선진

이인혁 회장, 2006 한국경영자대상 수상

(주)선진의 이인혁 회장이 '2006년 한국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영자대상은 1988년 설립된 대한경영학회가 한국 경영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경영인

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경영학회로부터 대상을 수상 받은 이인혁 회장은 축산업계의 살아있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73년 제일종축농장을 시작으로 한국의 축산 산업에서 양돈을 비롯한 사료사업·육가공·식육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역사 속에는 한국 축산과 축산식품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시킨 개척자로서의 자부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 특히 97년 필리핀 배합사료공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데다 고급 돈육 파워브랜드인 '크린포크'와 양돈 계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등 탁월한 기업가 정신과 미래를 조망하는 직관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자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그는 앞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체계적인 양돈계열화 사업 모델을 도입,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돈육 '크린포크'를 생산, 지난 2004년에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2004·2005년 2년 연속 미국 유력 금융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하는 2백개 월드베스트 중소기업에 당당히 포함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회장은 "선진은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노력에 병행하여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오늘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더불어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아낌없이 연구하고 투자해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